

소득위험과 노후준비정도 및 현재생활의 만족도 간의 관련성

이찬호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Instability and the Degree of Preparation for Old Life and Satisfaction with Current Life

Chan-Ho Lee
Professor,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요약 오늘날 고령화와 경제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노후준비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본 연구는 소득의 불안정성과 노후준비정도와 현재생활의 만족도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주요 변수를 추출하고 이를 설문화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구조방정식 모델로 통계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의 소득위험이 노후준비정도를 매개로하여 현재생활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나 현재의 소득위험이 현재생활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령변수와 부양가족 수를 각각 2분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현재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선행요건으로 노후준비정도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현재 소득의 변동성(위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요인(잠재변수)들 간의 관련성 정도는 연령, 부양가족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세부적으로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다. 본 분석 결과는 현재 각 개인의 상황 속에서 만족스런 삶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횡단면적 분석만을 실시한 한계점을 갖고 있으며 향후에는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주제어 : 소득위험, 노후준비정도, 현재생활의 만족도, 구조방정식 모형, 부양가족 수

Abstract The need for preparation for old life has been further increased due to the increase of the elderly population and changes in economic conditions toda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instability and the degree of preparation for old life and satisfaction of current life. The key variables were extracted through prior study review. And the data collected through the survey were statistically analyzed with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analysis found that the indirect effect of the current income risk on the satisfaction of current life through the preparation for old life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under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of 0.05.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direct effects of current income risk on the satisfaction of current life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n additional analysis was conducted by dividing the age, the number of dependents by two groups respectively. To summarize the results, preparation for old life played a significant role as a prerequisite for improving the satisfaction of current life. And the variability(risk) of current incom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eparing for old life. At this time, the degree of relevance between the factors(potential variables) differed somewhat between the two group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will be meaningful in providing basic source of data to prepare for a satisfactory life in each individual's current situation. This study, meanwhile, has limitations that have only been done with cross-sectional analysis and would like to analyze time-series changes in the future.

Key Words : Income instability, The degree of preparation for old life, Satisfaction with current life, Structural equation model, Number of dependents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Fund for Humanities & Social Studies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2019.

*Corresponding Author : Chan Ho Lee(lechanho@pusan.ac.kr)

Received November 20, 2019

Accepted December 20, 2019

Revised December 10, 2019

Published December 28, 2019

1. 서론

오늘날 신문지상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보여 주는 기사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때 눈에 띄는 기사들을 보면, 급증하는 가계부채, 저금리, 디플레이션 우려, 저출산과 고령화, 자영업자의 어려움 등 경제적 어려움을 나타내는 기사가 많다. 점차 노령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상기와 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의해 가계소득의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노후를 위한 준비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가계저축과 소득의 불확실성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있었으나 실증연구의 결과가 일치하지는 않았으며[1-5], 한국의 상황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또한 노후준비정도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은 알 수 있으나[6] 소득위험과 노후준비정도 및 현재생활의 만족도 등 3 변수 간에 연결된 직접 및 간접적 관련성을 동시에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 상황에서 소득의 불안정성과 노후준비정도와 그에 따른 현재 생활의 만족도간의 관련성을 확인적요인분석을 통해 선행연구에서의 각 단계별 단편적 분석을 한단계 나아가 통합적으로 실태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본 연구주제와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각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 중 본 연구에 적용될 변수들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분석결과는 현재생활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들의 관련성을 연령, 부양가족 수 등 인구통계적 상황에 따라 세분화하여 차이를 밝힘으로써 현재 각 개인의 상황 속에서 만족스런 삶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2.1 소득위험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와 그와 관련한 생활에서의 만족도는 소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이때의 소득은 일생의 기간을 통해 불 때 일반적으로 변동성을 나타내게 된다. 본 연구에서 소득위험은 월별, 연도별 평균적인 소득의 변화정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소득의 변동성을 주택소비와 관련하여 분석한 연구로는 소득의 변동성이 높을수록 주택소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주장한 Haurin의 연구

[7]와 평균소득이 일정하더라도 미래 소득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투자를 감소시키고 현재의 소비를 증가시킨다고 주장한 Robst 외의 연구[8]가 있다. 또한 2008년부터 5개년간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해 가구주 근로소득의 변동성이 주택점유형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이용래 등의 연구[9]에서도 가구주 소득 변동성이 클수록 주택소유확률이 낮아짐을 밝혔다.

한편 소득불확실성을 로그소득분산을 사용하여 측정 한 차은영 등의 연구[1]에서는 소득불확실성이 높은 가구일수록 미래의 큰 소득감소에 완충작용을 해줄 수 있는 부를 많이 보유하려고 하므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가계저축이 증가하고 부는 늘어나게 된다고 기술하면서 소득 불확실성이 부(금융자산, 총자산, 순자산)를 사용하여 측정)에 정의 관계가 있음을 밝혀 소득의 불확실성이 클수록 예비적 저축동기 등 부를 쌓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함을 보여주었다.

Kimball의 연구[10]에서는 소득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가계는 위험수익률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행동을 함을 밝혔다. 이와 유사하게 이탈리아 가계를 대상으로 분석한 Gusio 등[2]도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는 연령이나 소득 또는 부의 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노동을 통한 소득에 위험이 있으면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를 줄인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관호 등[11]도 소득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소비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2.2 노후생활준비

오늘날 점점 길어지고 있는 평균수명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퇴직이후의 경제생활 영위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이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노후준비의 개념을 종합하면[6]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영역이 노후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윤상열[12]은 설문조사분석을 통해 경제적측면의 노후준비가 성공적인 노후생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또한 설문조사방식을 통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해 분석한 임수민의 연구[13]에서는 노후준비관련 주제가 경영학, 사회학, 노년학, 사회복지학 등 여러 학문분야에서 연구되어 왔음을 제시하면서 경제적 준비가 노후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는 분석에서 경제적 준비가 노후생활의 기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으며 그러나 노후생활의 안정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한편 한

귀레[14]의 연구에서는 노후준비유형을 건강, 경제, 노후 생활준비인식, 노후준비행동, 성공적노년인식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삶의 만족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 노후준비정도는 전반적 은퇴준비와 재무적 준비등을 의미한다.

2.3 생활만족도

삶의만족도 주제는 정보분야[15], 운동분야[16] 등 여러 방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본 연구는 경제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한다. 생활의 만족도는 개인이 자기의 생활에 만족하는 정도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주관적인 안녕감에 포괄되는 개념이다[17]. 생활의 질을 객관적 지표만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서 캠펠[18]은 객관적 지표로는 생활의 질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1970년대 이후부터는 주관적 측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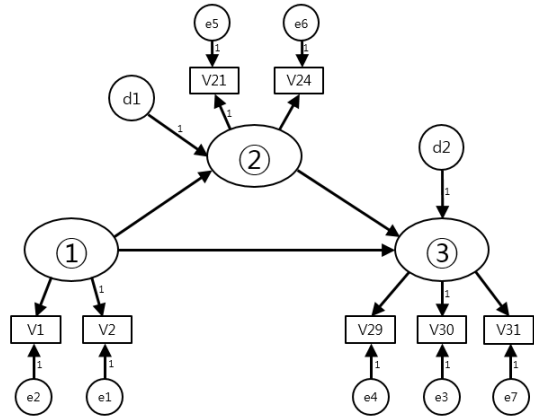
생활의 만족도는 건강측면, 소득(경제)측면, 노동(일)측면, 가족측면, 사회활동(취미)측면 등이 주요 영역으로 구성된다[19]고 하였으며, 가브리엘 등[20]도 재정상황, 건강, 심리적 안녕, 사회적 관계와 역할 등을 생활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로 제시하였다.

여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경제적 요인이 생활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임을 밝히고 있다[21,22]. 석진주의 연구[23]에서는 경제적으로인 등을 독립변수로하고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제적 요인 중 특히 불안정한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부분적으로 밝혔다. 서정숙의 연구[6]에서도 경제적 노후준비, 심리적 노후준비, 신체적 노후준비, 사회적 노후준비를 독립변수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 노후준비가 다른 변수에 비해 가장 높게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현재생활의 만족도는 보다 나은 희망정도, 할 수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의 추가적인 수행가능성 등을 의미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각 단계별로 단편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와 달리 소득위험과 노후준비정도 및 현재생활의 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동시에 직접적 효과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연령과 부양가족수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차별성을 갖는다.

3.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앞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1,7,8] 소득의 변동성이나 미래소득의 불확실성은 주택소비 또는 가계 저축 등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노후준비정도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6,14].



①degree of income risk, ②degree of preparation for old life, ③the satisfaction of the current life, V1:degree of monthly income change, V2:degree of change in income by year, V21:economic readiness, V24:Preparation for old life, V29:have a better hope, V30:to have a lot of work to do, V31:be capable of doing something worthwhile

Fig. 1. Research Model

이러한 선행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득위험이 노후준비정도를 매개로하여 현재생활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와 소득위험이 현재생활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 그리고 이들 두 효과를 합한 총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소득위험은 노후준비정도를 매개로 하여 현재생활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모형은 Fig. 1과 같이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9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문항의 미 표기(중복표기 포함) 또는 불성실하게 답변한 설문은 제외하고 총 215부의 설문을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통계분석방법은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요인분석을 통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AMO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4. 분석결과

4.2.1 기술통계량분석 결과

Table 1은 본 분석에 사용한 표본의 인구통계적 분석

결과이며 전체 설문조사대상자의 성별과 결혼여부 및 연령대, 부양가족 수 그리고 각 관측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제시하였다.

Table 1. Sample descriptions

categorization		numbers	%		
gender	man	113	52.6		
	woman	102	47.4		
marital status	married	173	80.5		
	single	42	19.5		
age	thirties	86	40.0		
	forties	72	33.5		
	fifties	50	23.3		
	above 60	7	3.2		
number of dependents	0	29	13.5		
	1	21	9.8		
	2	55	25.6		
	3	79	36.7		
	4	22	10.2		
	5	6	2.8		
	6	3	1.4		
total		215	100.0		
variables		Min	Max	Mean	Std. D
① degree of income risk	V1	1	5	1.87	.898
	V2	1	5	2.04	.873
② degree of preparation for old life	V21	1	5	3.04	.904
	V24	1	5	2.77	.842
③ the satisfaction of the current life	V29	1	5	3.93	.784
	V30	1	5	3.74	.948
	V31	1	5	3.89	.867
Valid N		215			

V1:degree of monthly income change, V2:degree of change in income by year, V21:economic readiness, V24:Preparation for old life, V29:have a better hope, V30:to have a lot of work to do, V31:be capable of doing something worthwhile

성별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간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큰 차이는 없으며, 결혼여부에서는 기혼의 응답자가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연령대는 30대와 40대 그리고 50대의 비율이 균등하지는 않으나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연령대들이 적절히 포함되어 있다. 이는 본 분석이 소득위험 정도에 따른 노후준비정도와 현재생활의 만족도에 관한 분석이므로 표본은 연구목적에 맞게 적절히 구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분석에서의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및 종속변수의 역할을 하는 3개의 요인(잠재변수)과 이들 각 요인에 대한 관측변수(측정변수)들은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항목을 참고하여 설문으로 작성하였으며 응답자료의 신뢰성을 검정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크론바알파(Cronbach's alpha)값을 기준으로 항목을 정제하였다.

4.2.2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한 분석결과

Table 2는 설문조사를 통한 전체표본 215개에 대하여 현재 소득의 위험정도와 노후준비정도 그리고 현재생활의 만족도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유의수준 0.05하에서 현재의 소득위험은 노후준비정도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노후준비정도는 현재생활의 만족도에 양(+)의 영향을 미쳐 현재 소득이 불균등하여 소득위험이 높으면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며 노후준비가 잘 되어있을수록 현재의 생활에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현재의 소득위험이 노후준비정도를 매개로 하여 현재생활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나 현재의 소득위험이 현재생활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Statistic Results(a full sample)

variables		Estimate	S.E.	C.R.	P
a	②<-①	-0.252	0.086	-2.94	0.003
	③<-①	0.111	0.077	1.446	0.148
	③<-②	0.449	0.089	5.068	0.001
b	③<-①	-0.113			0.004
c	③<-①	-0.002			0.892
RMR		GFI		AGFI	
0.009		0.993		0.983	
				NFI	
				0.993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①degree of income risk ②degree of preparation for old life ③the satisfaction of the current life

* From the following table, apply the same as above footnote.

참고로 모델의 적합도를 보면 전반적 적합도를 나타내는 지수 중 절대적합지수인 RMR(기준 0.08이하), GFI(기준 0.9 이상), AGFI(기준 0.9 이상)와 증분적합지수인 NFI(기준 0.9 이상)가 본 연구를 위한 모든 분석에서 기준을 충족하여 모델은 적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가 확인되어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가정경제생활에서 그 상황별로 주로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인구통계적 관심변수 중 연령변수와 부양가족수에 대하여 각 표본을 좀 더 세분화하여 각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Table 3은 연령변수를 2분(중위수를 기준으로 2분할)하여 높은 연령집단과 낮은 연령집단으로 구분한 후 집단별로 소득의 위험정도와 노후준비정도 그리고 현재생활의 만족도 등 3개의 요인(잠재변수)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Table 3. Statistic Results(age-based classification)

		age-high group				
		variables	Estimate	S.E.	C.R.	P
a	②X-①	-0.235	0.089	-2.631	0.009	
	③X-①	0.152	0.09	1.685	0.092	
	③X-②	0.589	0.143	4.103	0.001	
b	③X-①	-0.138			0.03	
c	③X-①	0.013			0.985	
		age-low group				
		variables	Estimate	S.E.	C.R.	P
a	②X-①	-0.331	0.184	-1.799	0.072	
	③X-①	0.144	0.157	0.913	0.361	
	③X-②	0.438	0.126	3.475	0.001	
b	③X-①	-0.145			0.071	
c	③X-①	-0.001			0.977	
		Critical Ratios for Differences between Parameters				
variables		a	b	c		
	②X-①	-0.47				
	③X-①	-0.044	-	-		
	③X-②	-0.791				
	RMR	GFI	AGFI	NFI		
	0.018	0.984	0.959	0.983		

분석결과 높은 연령집단에서는 현재의 소득위험이 노후준비정도를 매개로하여 현재생활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낮은 연령집단에서는 노후준비정도가 현재생활의 만족도에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높은 연령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두 집단 간에 노후준비정도가 현재생활의 만족도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차이는 임계값을 기준으로 볼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Table 4는 부양가족수를 2분(중위수를 기준으로 2분함)하여 부양가족 수가 많은 집단과 부양가족 수가 적은 집단으로 구분한 후 집단별로 소득의 위험정도와 노후준비정도 그리고 현재생활의 만족도 등 3개의 요인(잠재변수)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부양가족 수가 많은 집단에서는 현재의 소득위험은 노후준비정도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노후준비정도는 현재생활의 만족도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후준비정도를 매개로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양가족 수가 적은 집단에서는 노후준비정도만 현재생활의 만족도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양가족 수가 많은 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Table 4. Statistic Results(categorized by number of dependents)

		dependent family - many group				
		variables	Estimate	S.E.	C.R.	P
a	②X-①	-0.235	0.111	-2.121	0.034	
	③X-①	0.188	0.103	1.831	0.067	
	③X-②	0.642	0.136	4.736	0.001	
b	③X-①	-0.151			0.087	
c	③X-①	0.037			0.679	
		dependent family - less group				
		variables	Estimate	S.E.	C.R.	P
a	②X-①	-0.205	0.151	-1.359	0.174	
	③X-①	0.118	0.091	1.287	0.198	
	③X-②	0.294	0.109	2.705	0.007	
b	③X-①	-0.06			0.067	
c	③X-①	0.057			0.268	
		Critical Ratios for Differences between Parameters				
variables		a	b	c		
	②X-①	0.161				
	③X-①	-0.512	-	-		
	③X-②	-2.005				
	RMR	GFI	AGFI	NFI		
	0.023	0.985	0.962	0.984		

또한 두 집단 간에 노후준비정도가 현재생활의 만족도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차이는 임계값을 기준으로 볼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2.005)한 차이를 보였으며 부양가족 수가 많은 집단의 영향정도(0.642)가 부양가족 수가 적은 집단의 영향정도(0.294)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현재생활의 만족정도에 노후준비정도가 더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소득위험과 노후준비정도 그리고 이에 따른 현재생활의 만족정도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전체표본 215개에 대하여 현재 소득의 위험정도와 노후준비정도 그리고 현재생활의 만족도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현재의 소득위험이 현재생활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노후준비정도를 매개로하여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의 소득위험이 현재생활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3개의 요인(잠재변수)간의 관계에 대하여 높은 연령집단과 낮은 연령집단으로 구분한 후 집단 간 차이

를 분석한 결과 노후준비정도가 현재생활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아 현재생활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노후준비정도의 중요도는 연령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3개의 요인(잠재변수)간의 관계에 대하여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많은 집단과 적은 집단으로 구분한 후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양가족 수가 많은 집단이 적은 집단에 비하여 현재생활의 만족정도에 노후준비정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선행요인으로 노후준비정도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현재 소득의 변동성(위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요인(잠재변수)들 간의 관련성 정도는 연령, 부양가족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세부적으로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다. 결국 현재생활의 만족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 개별경제주체의 상황에 맞게 노후준비를 충실히 해야함을 본 분석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이용한 횡단면적 분석 결과만 제시한 한계점을 갖고 있으며 또한 본 분석에서 사용된 변수 이외에 본 변수간의 관련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생략되어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변수를 추가한 보다 섬세한 분석과 보다 장기간의 자료를 이용한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REFERENCES

- [1] E. Y. Chah & E. Y. Choi. (2007). The Effect of Income Uncertainty on Household's Saving. *Journal of Women and Economics*, 4(2), 91-113.
- [2] L. Gusio, T. Jappelli, & D. Terlizzese. (1996). Income Risk, Borrowing Constraints, and Portfolio Choice. *American Economic Review*, 86(1), 159-172.
- [3] K. E. Dynan. (1993). How Prudent Are Consumer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1(6), 1104-1113.
- [4] V. Dardanoni. (1991). Precautionary Savings under Income Uncertainty: a Cross-Sectional Analysis. *Applied Economics*, 23, 153-160.
- [5] J. Skinner. (1988). Risky Income, Life Cycle Consumption, and Precautionary Savings.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2, 237-255.
- [6] J. S. Seo. (2017). *The Effects of Later Life Preparation on the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Centered around Moderation Effects from Social Support-*. Doctoral dissertation.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Seoul.
- [7] D. R. Haurin. (1991). Income Variability, Home ownership, and Housing Demand. *Journal of Housing Economics*, 1, 60-74.
- [8] J. Robst, R. Deitz & K. McGoldrick. (1999). Income Variability, Uncertainty and Housing Tenure Choice.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29, 219-229.
- [9] Y. R. Lee. & E. C. Chung. (2015). Effects of Income Variability on Housing Tenure Choice: Case of Variability of Household Head's Labor Income. *Housing Studies Review*, 23(1), 55-78.
- [10] M. S. Kimball. (1993). Standard Risk Aversion. *Econometrica*, 61(3), 589-611.
- [11] K. H. Shin. & W. Ju. (2002). The Effect of Income Uncertainty on the Accumulation and Consumption of Wealth. *Economic Analysis Review*, 8(1), 129.
- [12] S. Y. Yoon. (2012). *A Study on the Effects of Preparation for Later Life on Successful Aging*. Master dissertation. Kangnam University, Seoul.
- [13] S. M. Im. (2010). *A Study of Readiness for Old Ages of White Colors*. Master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Seoul.
- [14] G. R. Han. (2017). *The Analysis of the Type of the Preparation for Old Age of the Middle-aged*. Doctoral dissertation. Dongshin University, Jeonnam.
- [15] S. H. Kim & K. C. Lee. (2019). Analyzing Effects of PC Competence on Life Satisfaction: Emphasis on Mediating Role of Internet Service Usag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9), 55-60.
- [16] S. H. An. (2019). The Effects of Exercise Program on Cognitive Function,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in Elderl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7), 401-408.
- [17] E. Diener.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3-575.
- [18] A. Campbell. (1976). Subjective Measurement of Well-being.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3, 117-124.
- [19] K. F. Schuessler & G. A. Fisher. (1985). Quality of Life Research and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1(1), 129-149.
- [20] Z. Gabriel & A. Bowling. (2004). Quality of Life from the Perspectives of Older People. *Ageing & Society*, 24(5), 675-691.
- [21] R. D. Tella, R. J. MacCulloch & A. J. Oswald. (2003). The Macroeconomics of Happines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5(4), 809-827.
- [22] P. M. Braum. (1976). *Psychological Well-Being and Location in the Social Structure*. Doctoral dissertation, Southern California University, California.
- [23] J. J. Suk. (2019). *The Effect of Insecurity Experience on Life Satisfaction*. Master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이 찬 호(Chan-Ho Lee)

[정회원]



- 1995년 2월 : 아주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박사)
- 2010년 8월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부동산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원가관리회계, 부동산평가

금융

·E-Mail : lechanho@pusan.ac.kr